

## 이야기 10 : 달란트 비유

주제말씀  
[마태복음 25:21]

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 
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

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주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. 그는 떠나기 전 자기가 가진 재물을 세 사람의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했어요.

“내가 가진 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줄 테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 보아라.”

그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첫 번째 하인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고, 두 번째 하인에게는 두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고, 세 번째 하인에게는 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어요. 주인이 떠나간 뒤에 첫 번째 하인과 두 번째 하인은 곧 장사를 시작했어요. 두 사람은 많은 일을 성실히 잘 해내면 주인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.

첫 번째 하인은 주인이 맡기고 간 다섯 달란트에서 두 배 불어난 열 달란트를, 두 번째 하인도 원래 받은 것의 두 배인 네 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어요. 세 번째 하인은 어떻게 했을까요?

몇 달이 지난 후 드디어 주인이 먼 나라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.

세 하인들은 주인에게로 찾아가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.

주인은 첫 번째 하인과 두 번째 하인이 맡긴 일을 잘 해결한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어요.

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맡겨주겠다고 약속도 했어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인이 나와서 주인에게 이야기 했어요.

“주인님, 전 주인님께서 엄한 분이셔서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둬들이고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모으는 분인 줄로 압니다.

그래서 장사를 하다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지게 될까 봐 두려워서 차라리 주신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.

여기 주신 그대로 잃어버린 것 없이 가져왔습니다.”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너무 화가 났어요.

결국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노력한 하인들은 주인과 행복한 시간을 지냈고,

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게으른 하인은 슬피 울며 쫓겨나게 되었답니다.





5



2



1

●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 쓰고, 외우세요 (마태복음 25:21)

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

